

황선홍 대전 감독 “축구 역시 어렵다...서영재 가세”

안드레 앞세운 공격력 돋보이나 수비는 아쉬워
여름 이적시장 통해 독일에서 뛰던 서영재 영입

4승3무1패 승점 15점으로 수원 FC(5승3패 승점 15)와 함께 K리그2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전 하나시티즌의 황선홍 감독은 지난 달 3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괴롭다’는 말부터 반복했다. 팬스런 우는 소리는 아니었다. 안팎의 기대대로 팬들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내용이 감독의 욕심에 차지 않는 까닭이다. 특히 수비 쪽은 답답할 법도 했다.

대전은 지난달 27일 오후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0’ 8라운드 홈 경기에서 FC안양과 3-3으로 비겼다. 자신들의 안방에서 리그 하위권(9위)에 머물고 있는 팀과 비겼다는 자체로 실망스러운 성적인데 내용을 되짚으면 황 감독 가슴이 더 쓰러온다.

당시 대전은 전반 39분 박진섭

의 선제골 그리고 후반 8분 바이오와 안드레의 합작품으로 2-0까지 앞서 나갔다. 두 팀의 전력이나 분위기를 종합할 때 대전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으나 후반 중반 이후 흐름이 급격히 변했다.

후반 14분 아코스티가 만화골을 터뜨리며 안양의 추격이 시작됐다. 그리고 후반 29분 다시 아코스티의 동점골에 이어 3분 뒤인 후반 32분 마우리데스의 추가골까지 나오면서 경기가 뒤집혔다. 만약 이대로 경기가 끝났다면 대전이 입을 타격은 상당히 컸다.

대전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후반 44분 이정문의 극적인 동점골로 패배는 면했다는 것이다. 다행이면서 불행한 경기였다. 만약 안양전에서 2골차 리드를 지켜 승점 3점을 챙겼다면 대전은 단독 선두를 유지할 수 있었다.

황 감독은 안양전을 떠올리며 덧없이 웃었다. 그는 “처음에는 준비대로 잘 풀려가는 듯했는데 첫 골 먹더니 갑자기 무너졌다. 축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으나 이럴 경우는 참 답답하다”면서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다. 조금만 더 하면 어느 수준에 이를 것 같은데, 이번이 어이없는 실점들이 나오니 괴롭다”며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 K리그2 최고의 외국인 공격수로 불리는 안드레를 필두로 한 대전의 공격력은 정상급이다. 8경기에서 15골을 만들었으니 경기당 2골은 넣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실점이 12골이다.

황선홍 감독은 “2골을 넣는 경기는 어지간하면 잡아야하는데, 3골을 넣고도 비기는 일이 생기는 문제는 문제”라면서 “우리가 총 12골을 내줬는데 그중 5골이 세트피스에서 허용한 실점이다. 선수들이 경각심을 가져야하는 한다”면서 체질적이었다. 전체적으로 준수한 성적을 내고 있으면서도 우는 소리로만 일관한 것은, 앞으로는 ‘더워



K리그2 무대에서 자신도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는 황선홍 대전 하나시티즌 감독.

와도 싸워야하는 까닭이다. 황 감독은 “동계훈련 내내 포백을 연습했는데 최근에는 3백으로 바꿨다. 날이 더워지면서 아무래도 조직적인 방어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 동시에 다른 거의 모든 팀들이 3백을 쓰니 선수들이 더 어려움을 느꼈다”면서 “축구하는 축구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시즌

중 시스템을 바꿨으니 선수들 입장에서 혼선이 있는데, 그래도 잘 적응하고 있다”며 체질 뒤에 당근도 선사했다.

뉴스 1

‘7회 리드 시 21승 무패’ 삼성, 왕조 시절 떠오르는 불펜

오승환 복귀...우규민-최지광과 철벽 구축 ‘7회 리드 시 144연승’ 추억



삼성 라이온즈 오승환이 마운드에 올라 투구를 준비하고 있다.

삼성 라이온즈가 과거 ‘왕조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불펜을 구축했다.

삼성 팬들은 경기 후반 앞서고 있을 때, 마음 편히 승리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삼성엔 올 시즌 허삼영 신임 감독의 부임과 함께 약팀 이미지를

지우고 있다. 6월 29일 기준으로 24승24패로 6위다.

NC 다이노스와 개막 3연전을 싸늘이당하며 불안하게 시즌을 맞이했지만 이후 꾸준해 5할 언저리의 승률을 유지하는 중이다.

전력분석팀장 출신으로 각종 데이터 활용에 능하고 선수들의

체력 안배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허삼영 감독의 특징이다.

여기에 허삼영 감독은 ‘자키는 야구’라는 색깔을 팀에 다시 입혔다.

새로운 것은 없는 팀컬러다. 삼성은 2010년대 초중반, 철벽 불펜을 앞세워 왕조를 세웠다.

2012년부터 2014년에 걸쳐서는 ‘7회 리드 시 144연승’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수립하기도 했다.

당시 철벽 불펜의 중심에 있던 ‘끝판대장’ 오승환이 올 시즌 복귀하면서 삼성의 불펜은 다시 철벽을 들었다.

오승환의 복귀 전까지 임시 마무리를 맡았던 우규민, 4년차 시즌을 맞아 업그레이드된 최지광이 현재 삼성의 필승조를 맡고 있다.

오승환-우규민-최지광으로 이어지는 필승조 외에도 좌·우완 강속구 투수 노성호와 김윤수, 좌완 사이드와 임현준 등이 삼성 불펜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2군에서 조정 중인 ‘마무리 출신’ 장필준도 든든한 대기 자원이다.

삼성 불펜 평균자책점은 4.45로 키움 히어로즈(4.32)에 이은 2위다.

블론세이브는 10개 구단 중 최소인 단 1개뿐. 키움이 7블론을 기록 중인 것을 보면 실질적인 최강 불펜은 삼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144연승에 미치지 못하지만, 올 시즌 삼성은 7회 리드 시 21승 무패를 기록 중이다.

상대팀 입장에서 삼성을 만나 7회 이전에 리드를 잡아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이 생긴 셈이다.

반대로 삼성 선수들은 7회까지만 앞서면 된다는 생각으로 마음에 여유를 갖고 플레이할 수 있다.

이번주 삼성은 9위 SK 와이번스, 4위 LG 트윈스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홈 6연전을 치른다.

삼성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SK와 LG 타선이 삼성의 불펜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도 흥미롭게 지켜볼 대목이다.

뉴스 1

KPGA, 내일 2020 시즌 개막

문경준·이재경·양용은 등 스타 총출동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코리안투어가 약 8개월 간의 휴식기를 끝내고 2020시즌에 돌입한다.

KPGA 투어는 오는 7월2일부터 나흘 간 경남 창원시 소재 아라미르 골프 앤 리조트 미르코스(파 72·7245야드)에서 2020시즌 개막전 우승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총상금 5억원)을 개최한다.

KPGA 투어가 열리는 것은 지난해 10월 제네시스 챔피언십 이후 8개월 만이다. 당초 4월 시즌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7월여야 개막전을 치르게 됐다.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KPGA 투어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총출동해 뜨거운 우승 경쟁이 예상된다.

지난해 제네시스 대상 수상자 문경준(38·휴젼)은 대상 2연패를 향해 시동을 건다. 문경준은 지난해 우승은 없었지만 준우승 1회를 포함해 톱10에 7차례 이름을 올렸다. 지난 시즌 무승의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문경준은 KPGA를 통해 “기다렸던 대회가 시작돼 기쁜 마음이다”며 “지난해 대상을 수상했지만

우승이 없어서 아쉬웠다. 올해는 첫 대회부터 우승에 도전, 우승과 함께 2년 연속 제네시스 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신인상까지 거머쥔 이재경(21·CJ오쇼핑)은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이재경은 이번 시즌을 위해 태국 전지훈련에서 쇼트게임 능력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했다.

이재경은 “지난해 우승자로 출전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개막전으로 치러져 부담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좋은 기억이 있는 코스이고 실력 있는 선수들이 많이 출전하는 만큼 재미있게 경쟁하고 싶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일본투어 등 해외 투어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면서 ‘메이저 챔피언’ 양용은(48), 양정훈(25) 등도 출사표를 던졌다.

2009년 PGA 챔피언십 우승자 양용은은 지난해 일본투어 상금순위 23위에 오르며 등 돌리지 않은 기량을 뽐냈다. 지난해 9월 제35회 신한동해오픈 이후 약 10달 만에 국내 대회에 출전, 우승에 도전한다.

엠엘비닷컴 예상 “류현진은 1선발·최지만 3번타자”

추신수 텍사스 1번·김광현은 예상 명단서 빠져

메이저리그 홈페이지가 류현진(33)이 올 시즌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1선발 중책을 맡을 것으로 예상했다.

엠엘비닷컴은 지난달 30일(한국 시간) 2020시즌에 임하는 30개 구단의 선발 로테이션과 개막전 예상 라인업을 공개했다.

매체는 류현진이 올해 토론토의 에이스 역할을 할 것으로 점쳤다.

류현진은 2019시즌을 마친 뒤 FA 자격을 얻었고 토론토와 4년 8000만달러에 계약을 맺었다. 그는 지난해 LA 다저스에서 14승5패, 평균자책점 2.32로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막이 미뤄졌지만 류현진은 토론토 최고의 투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엠엘비닷컴은 토론토가 류현진-테너 로이크-체이스 앤더슨-맷 슈마커-트렌트 손튼의 선발 로테이션을 가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류현진 제외 4명 모두 오른손 투수다.

빅리그에서 가장 오래 된 코리안 메이저리거 추신수는 올해 텍사스 레인저스의 리드오프를 맡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추신수의 포지션은 외야수가 아닌 지명타자로 분류했다. 추신수는 지난해 외야수로 80경기, 지명타자로 61경기에 나왔다.

또 다른 한국인 타자 최지만은 탬파베이 레이스에서 3번타자 겸 1루수로 출전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최지만은 지난해 빅리그 입성 이후 최다인 127경기에 나와 타율

0.261 19홈런 63타점의 성적을 보였다.

반면 포스팅을 통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입단한 좌완 김광현의 이름은 선발 로테이션 명단에서 빠져있다.

김광현은 4차례 시범경기에서 8이닝 무실점, 1승 1홀드의 성적을 기록했다. 분위기가 좋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개막이 미뤄진 것이 김광현 입장에서 아쉬웠다.

정확한 보직은 개막을 앞두고 훈련을 진행하면서 정해질 전망이다.

엠엘비닷컴은 세인트루이스가 잭 플래허티-다코타 허드슨-애덤 웨인라이트-마일스 미콜라스-카를로스 마르티네스 순으로 선발을 가동할 것으로 점쳤다.

한편 엠엘비닷컴은 투타 겸업을 하는 일본 출신의 오타니 쇼헤이가 LA 에인절스에서 4번 지명타자와 2선발을 겸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타니는 2018시즌 막판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아 지난해에는 타자로만 전념했다.

이 밖에 지난해 류현진이 뛰었던 LA 다저스의 선발 로테이션은 클레이튼 커쇼-워커 블러-데이빗 프라이스-홀리오 유리아스-알렉스 우드 순이었다.

에리조나 리크·워싱턴 짐머맨 등 MLB 스타들 2020시즌 포기 결정

메이저리그가 개막을 앞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불참하는 선수들이 속출하고 있다.

ESPN은 지난달 30일(한국 시간) “에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마이크 리크가 2020시즌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리크는 가족과 많은 논의 끝에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 시즌을 뛰지 않기로 결정했다. 리크의 에이전트는 입장문을 통해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리크는 에리조나 팀메이트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2021 시즌을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크는 지난 시즌 시애틀 매리너스와 에리조나에서 뛰며 32경기 선발 등판, 12승11패 평균자책점 4.29를 기록했다. 리크는 이번 시즌 에리조나의 5선발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보였다.

리크 외에 워싱턴 내셔널스의 내야수 라이언 짐머맨, 우완투수 조 로스도 시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짐머맨은 구단을 통해 “아내와 세 아이, 특히 최근에 태어난 막내 아이를 고려해 2020시즌 불참을 결정했다”며 “가족을 위해 내린 결정이고 이를 이해해주시고 지지해준 구단에 감사하다”고 밝혔다.